嶺南日報

1945年 10月 11日 創刊
1989年 4月 19日 復刊

社 長 朴·培根
發行·編輯·印刷人 朴 晶鎬
區 域 局 長 李鍾明

大邱市 中區 西門路1街 71
(郵便番號 700-251)

交換代表 | 756-9001~12
756-9001~12

編輯局 756-8877
廣告局 756-9966
販賣局 756-9988
營業課 756-9977
配達事故
FAX 756-9012
서울支社 (02) 739-3875~6

購讀料 月額 3,500원
1部 350원

本紙는 新聞[illegible]
그 責任은 [illegible]

© 嶺南日報社 1989

復刊辭

民主·統一·바른 鄉土紙

뉴신 촉촉의 아픔이 은 누리에가 부활하였다. 자연의 빛깔는 숨을 쉬고 있다. 밝음을 뿜어싸고 있다. 봄꽃들의 화사함에 우리 지역이 이토한 빛나는 성숙과 우리는 보다. 그동안 嶺南人과 우리 지역이 이토한 빛나는 성숙과 어부운 그림자를 어떻게 불식시키고 펼쳐야 새 시대의 보라로 살을 수 있을가를 모색 실현하는 발돋움대에 소명로 嶺南日報의 기틀 박히고자 하다.

처제, 鄉土民衆의 理想을 펼쳐 정이다. 상처를 거쳐 후기 산업사회로 진전하면서 소득·생활향상, 복권·수평·공공수호의 개선책이 이루어지는 한편에서 환경오염·교통혼잡·범죄·사회적 일탈 현상 등이 급속히 만연하고 있다. 이 복잡관리기술시대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함에 우리는 합리적인 기능이 가장 잘 실현되는 것이 가장 잘한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지방자치는 지금 주민자치의 원칙에서가 아니라 정권과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출발하여 성숙한 슬픔의 소용로서 기틀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념과 이익, 이념과 이념, 계급과 계급, 집단과 집단들 등의 소통을 분명하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분명하라고 함은 지금 지금도 한다. 그러나 위기의식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보다 중요한 것은 풍요과 대립, 그리고 불화와 갈등을 극복해가는 것이다. 그 소용로 지방분권이 제대로 국가와 법률 그리고 한다. 公人, 公職, 公務員, 公務기관들, 公企業 등 지방자치는 모든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함이며, 한때 실현에 경험은 투자에 참여한 재 경영진이 『嶺南日報』를 훌륭한 것의 안 누구에게도 이를 수 없다는 약속한 바를 지켜야 할 것이다.

永遠까지 새겨둘 으로

嶺南日報는 우리 지역의 민족적 민주적 자각과 부활의 한 출발점이었던 4.19를 기해 재탄생하며 부활을 기리는 지역과 광주에 깃들 각지의 인사들을 동참하여 참여하는 할로선배유지와 출동 부활과 복지에 시설을 기울인 연대 경영부를 꿈이 기여할 것이며, 한때 실현에 경험은 투자에 참여한 재 경영진이 『嶺南日報』를 훌륭한 것의 안 누구에게도 이를 수 없다는 약속한 바를 지켜야 할 것이다.

永遠까지 새겨둘 으로

嶺南日報는 우리 지역의 민족적 민주적 자각과 부활의 한 출발점이었던 4.19를 기해 재탄생하며 부활을 기리는 지역과 광주에 깃들 각지의 인사들을 동참하여 참여하는 할로선배유지와 출동 부활과 복지에 시설을 기울인 연대 경영부를 꿈이 기여할 것이며, 한때 실현에 경험은 투자에 참여한 재 경영진이 『嶺南日報』를 훌륭한 것의 안 누구에게도 이를 수 없다는 약속한 바를 지켜야 할 것이다.

永遠까지 새겨둘